

전남 최초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 개최

순천시, 8월 한 달간 '일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滿)다' 주제

순천시는 오는 8월 한 달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암사와 순천갯벌을 무대로 '2023 세계유산축전-선암사·순천갯벌'을 개최한다. 본 축전의 주제는 '일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滿)다'이다.

전남 최초로 열리는 순천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선암사와 자연유산 순천갯벌이 가진 각각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길을 연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표현했다.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은 8월 4일 19시에 열릴 예정이다. '올림'을 주제로 하는 주제공연은 선암사에서 순천갯벌로 이어지는 연결의 길을 통해 사람과 자연, 현재세대와 미

래세대, 더 나아가 순천과 세계가 함께하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선포할 예정이다.

한 달 동안 이뤄지는 축전은 기존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유산 속에 특별한 공간과 시간, 비움과 섬을 담고, 유산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공연·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먼저 세계유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 향유를 위한 전시·공연 프로그램 및 전통의식 재현행사, 산사음식문화 체험 등이 8월의 순천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섬을 찾아가는 선암사의 '천년불심길'과 16km의 순천만 갈대길을 유

산해설사·생태해설가와 함께 걷는 '갈대길 섬 with 비움'을 통해 길을 걸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찾고, 보존하는 메시지를 담아갈 계획이다.

또한 선암사의 폐불 봉안 의식 시연은 세계유산축전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특별한 무형 문화 체험으로 보는 이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계유산이 가진 가치를 찾아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확산 프로그램들도 다수 준비되어 있다.

세계유산 스탬프투어, 순천 세계유산 축전 스테이 등 세계유산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미래세대에게 유산의 가치 전달을 위한 '해운 세계유산학교'도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관내 초등학교생

약 30명을 선정하여 선암사와 순천갯벌 일원 곳곳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통해 우리 유산을 헤아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축전은 선암사가 가진 소박하지만 수려한 불교문화와 순천갯벌의 자연 생태계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까지, 문화와 자연, 유산과 사람의 공존을 담아낼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시는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로 세계유산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축전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지켜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가치를 미래세대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밝혔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양, 사업용 여객·화물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광양시는 6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의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00시~04시 사이에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 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밤샘주차 단속 전에 현수막 게시,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용한 차고지 밤샘주차 계도 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지난 3월 23일부터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초남리 763-5번지)를 무료 임시개방해 공영차고지 인근에 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눈에 띄게 줄인 바 있다.

또한 시에서는 상습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단속제를 적용해 관련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성,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교육

보성군은 지난 19일 여름철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급식시설 42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의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교육은 식중독 예방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식중독이란, △식중독 발생 현황, △식중독 분류 및 예방법, △집단급식소 위생관

리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시설 관계자는 "이번 식중독 예방 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 운영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위생을 깨끗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은 건강 취약계층으로 식중독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과 식중독 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시-해성산업개발, 백운유원지 관광개발 업무협약

펫 리조트 등 복합휴양시설 유치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광양시는 ㈜해성산업개발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백운유원지 관광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성산업개발은 봉강면 봉당리 산5-1번지 일원에 29,533㎡ 678억 원을 투자하여 복합휴양시설 4개동(지하1층-지상4층)에 숙박시설 249실, 카페테리아, 애견 놀이터, 공연장, 운동장, 수영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백운유원지 둘레길 타당성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을 통해 기본구상, 민간투자사 유치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펫리조트 복합휴양시설 유치를 위해 광양시 도시계획심의 자문위원회 등 각종 사전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29일 전

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경민 ㈜해성산업개발 회장은 "광양 백운제 일원에 들어설 펫리조트는 전국 최대, 전국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들을 위한 시설"이라며 "특히 대형견까지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은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인허가가 완료되면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민 4명당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백운제 인근에 펫리조트가 건립되면 광양시 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백운제 주변은 맑은 공기와 호수 등 관광지 좋



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해성산업개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는 한편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구례,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가입자 중 에너지 사용 절감 194세대 400만원 지급

구례군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가입자 중 에너지 사용을 절감한 194세대에 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용 건물, 아파트 단지, 학교 등의 에너지 사용량(전기, 도시가스 등)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해 탄소중립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에 대하여 과거 1~2년간의 월평균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감축률에 따라 5%~10% 미만 최대 1만 원, 10%~15% 미만 최대 2만 원,

15% 이상 최대 3만 원을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연 2회(6월, 12월) 지급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조건은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다.

군 관계자는 "구례군에서는 2023년도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L 30매를 지급하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례=오경범 기자

곡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 확보 '총력'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컨설팅 용역 최종보고회

곡성이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 추진체계 제4차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군수, 부군수, 군의회 의장, 관련 부서장 및 미래교육재단, 전남과학대학교, 청년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에 착수한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컨설팅 용역'의 최종보고와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곡성군은 지난 3월부터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민·관·산·학 추진체계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는 2022년과 2023년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B등급 168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투자계획과의 연속성을 위해 2024년에는 계속사업 5건과 더불어 신규사업 2건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우리 군이 가진 취약점을 강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역발상을 통해 지방소멸대응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군민 행복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인구 확보를 위한 사업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곡성=황상연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

구매 문의 ☎ 061)780-8294

순천기적의도서관, 오는 28일 '달빛 시네마' 야외 영화상영

순천시는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맞이하여 오는 28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영화상영 '기적의 달빛 CINEMA'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천기적의도서관에서 여름밤에 즐기는 이번 야외 영화 상영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 잔디마당에서 편안하게 음료와 간식을 즐기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상영작은 나이를 불문하고 두터운 열성 팬을 보유한 시리즈 '미니언스 2'로 가족 단위 관객들의 선택을 받음에 받은 작품이다.

이번 야외상영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 80명을 대상으로 하며, 관심 있는 시민은 27일까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순천그림책도서관에서는 '순례들레나부부쑀쑀!' 인형극을 상영한다. 순례들레나니의 정원에 살고 있는 민들레꽃 들레와 바위콩이, 그리고 정원에 우연히 찾아온 떠돌이 고양이 나부쑀쑀가 만나며 펼쳐지는 내용으로 인형극과 함께 전시도 관람 가능하며 입장은 무료이다.